

김영록 지사 “현대차 투자유치·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

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등 준비
투자 최적 입지 청사진 강조
“올 1년 단군이래 황금찬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충과 현대자동차그룹 투자를 준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현대차그룹이 수소 생산플랜트와 AI 데이터센터를 전남·북에 구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남은 풍부한 부지와 용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라며 현대차 투자에 대비한 정사진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비상 시국 상황에서 호남이 나라의 근본을 지키고 잘 극복하면서 이제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밑바탕이 됐고, 이에 대통령이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전남에 탄탄대로의 길을 만들 어줬다”고 지난 1년을 회상했다.

전남도는 올 한해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12월 정례조회’에서 직원들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018년 6조원대였던 국비 확보액이 2026년 10조원을 돌파했다. 또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후보지 여수 선정, 유튜브 10만 구독자 돌파와 조회수 100만회 돌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황금 찬스는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열심히 달려왔다”며

“그 결과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물, 전

력계통, 에너지공대를 비롯한 글로벌

대학 등 AI시대를 선도할 기본적 인프

라를 갖춰 황금 찬스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황금같은 기회는 기회일 뿐이며, 앞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농업 AX 플랫폼 추진 등 전통 농수 산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첨단산업을 선도하면서 문화관광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고 표준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 “농어촌 ATM 지역간 최대 30배 격차”

금융 서비스 개선 촉구



기초단체인 기장군은 2.6%에 불과해 같은 군 단위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3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82개 군 중 84%인 69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며, 1km당

ATM 설치 수는 2024년 기준 0.15대

로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90.4대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농어

촌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불편

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촉구위원회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금융 서

비스 등 생활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

점에 5.8점으로, 도시 대비 현저히 낮다”며 “고령 농촌 주민들은 단순 현금 서비스를 위해서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 관련 내용은 전무하다”며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촉구위원회는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금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신정훈 의원 “전남에 다시 희망의 새길 내겠다”

내년 전남지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8일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인 신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에 다시 희망의 새길을 내겠다”며 도박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 의원은 “전남이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8년 전 취임한 김영록 지사는 인구 2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무려 6만2,000명이고 전남의 소멸지수는 0.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벼랑끝 ‘위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록 도정 8년 동안 10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도민의 삶도, 전남의 경제도, 쓰러지는 민생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며 “도의 권한을 최대한 시군에 이양해 도민자치를 강화하고, 도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도민주권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또 “전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강화, 농어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의 소멸을 극복하겠다”며 “무상 대중교통 실현, 마을택시·순환버스·광역교통 연결, 광역교통 단일요금제 실현 등 생활비가 제일 싼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기반 ‘전남형 목표가격제’ 시행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산단 중심 ‘전남발전 3대 패키지’ 추진 △고흥 제2 우주센터 유치 등 고흥·순천·여수를 잇는 ‘전남 우주항공 산업벨트’ 등을 제시했다.

정근산 기자

김주웅 도의원 “전남도 남성 난임지원 시범사업을”

갈수록 늘어나는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열린 2026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남성 난임 지원은 공백이다”며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자는 10만8,000여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과거 5~6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지만,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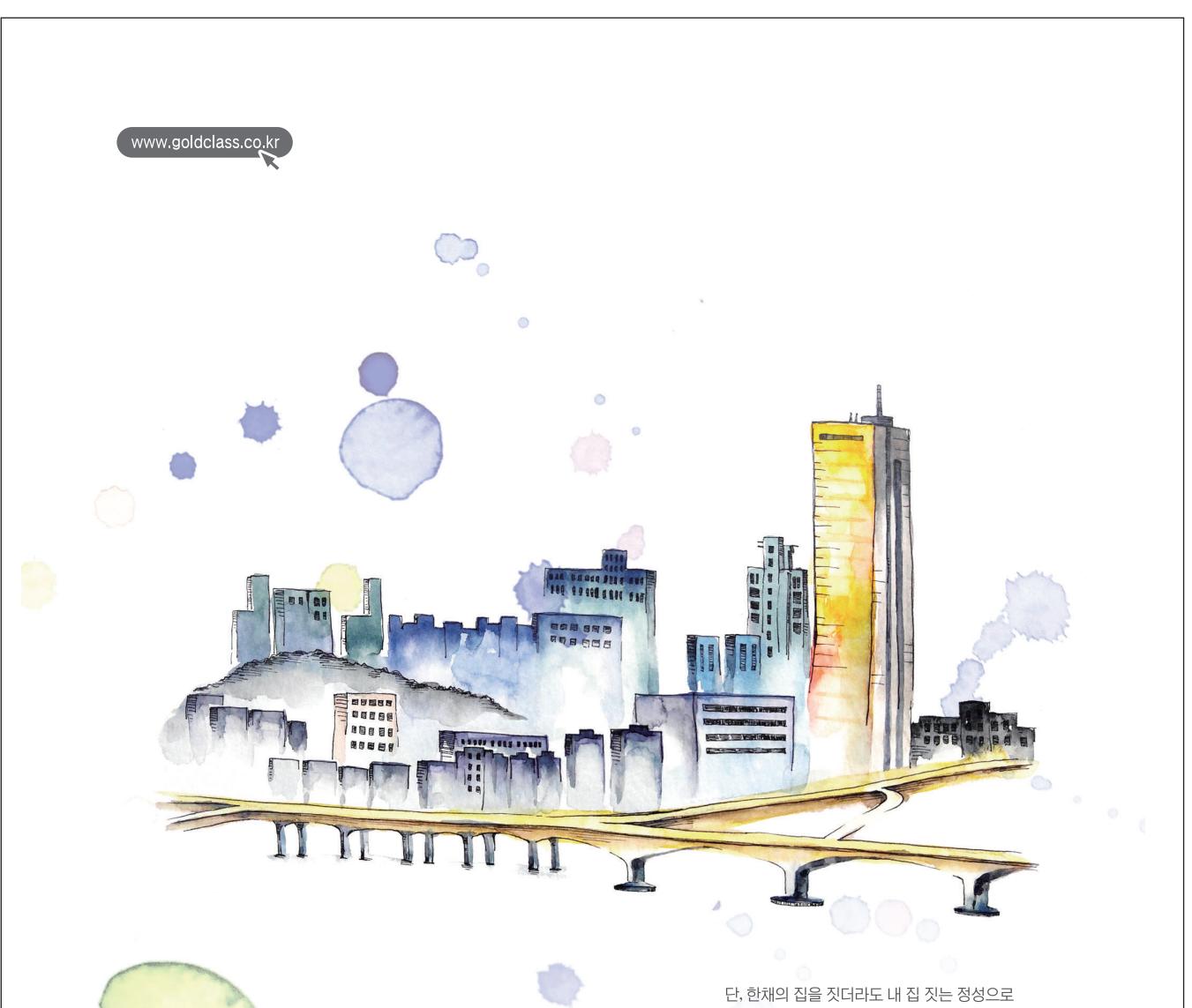
난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체 난임 정책의 소수에 불과해 많은 남성 난임 부부가 높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부·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시술비만 지원하는 구조”라며 “난임 원인은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등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정근산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니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